

3 정책동향

1. 민간투자 금융지원으로 시스템반도체 성장을 견인한다

○ 시스템반도체 133조원 투자,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

- 정부는 2월 25일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(주재 : 경제부총리)를 개최하고,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「시스템반도체 분야 민간투자 실행 가속화 및 투자·보증 강화 방안」을 발표하였음.
 - 同 방안을 통해 정부는 국내 반도체 제조 인프라 확대를 위해 대규모 민간투자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다양한 펀드 및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.
- 먼저, 국내 주요기업의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행정절차 이행, 규제 완화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, 변화하는 반도체 시장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.
 - 이를 위해, 현재 추진 중인 ①시스템반도체 133조원 투자, ②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민간투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관계부처간 협의*를 통해 조기에 해소 하고,
 - * 기업의 투자 애로 접수(산업부) → 관계부처간 애로 해소 협의 → 정부 협의체 상정·의결
 - 최근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올해 연말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*를 조속히 이행할 예정이며, 향후 기반시설(용수, 전력 등)의 적기 구축을 지원함.
 - *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·의결(~3월 1주) → 산단계획 승인(21.3월중) → 산단 공사 착공(21.4분기) → 1단계 Fab 착공(23년) → 산단 조성 및 1단계 Fab 완공(25년초)

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요

- (사업비) 총 120조원 (장비구매 등 포함), 산단 조성비 1.8조
- (사업기간) '19~'25년 ('21.4Q 산단 공사 착공)
- (내용) ①반도체 4개 Fab 신설, 최대 80만/월 생산능력 확보
 ②50개 이상 협력업체가 입주하는 상생형 클러스터 조성
 ③스마트산단 적용 및 창업활성화 등 혁신활동 지원
- (기대효과) 1.7만명 신규 직접고용



총 6,5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으로 반도체 생태계 육성

■ 아울러,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을 중심으로 조성된 총 6,500억원의 펀드를 활용하고, 이 중 2,800억원은 기존 펀드의 후속펀드 및 신규펀드로 마련함.

* (팹리스) 반도체 제조시설 없이 SoC 설계·개발을 수행하는 설계 전문기업 (디자인하우스) 설계된 회로를 파운드리에서 생산 가능하도록 최적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

<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투자 가능한 대표 민간펀드 >

분야	규모	'21년 주요계획
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	1,000억원	▶ 400~500억원 투자 추진, 500억원 규모의 하위펀드 조성
반도체성장펀드	2,000억원	▶ 약 300억원 규모의 M&A 프로젝트 펀드 조성
D.N.A+BIG3 펀드	2,500억원	▶ 1,000억원 규모의 후속펀드 추가 조성
소부장 반도체 펀드	1,000억원	▶ 연내 신규 조성 예정

시스템 반도체 등 BIG3 분야 우대금리·특례보증 제공

■ 마지막으로, 정책자금 대출 및 정책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신규 투자를 활성화하고, 민간기업의 자생적인 성장 기반 조성을 지원함.

○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산업은행, 기업은행 등의 정책자금*을 활용하여 중견·중소기업의 신규투자를 촉진함.

* ('21년 지원규모) ▲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: 3조원, ▲대한민국 대 전환 뉴딜 특별자금 : 3.5조원

○ 기술보증기금의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 운영 시 D.N.A+BIG3 분야 기업은 핵심기업으로 분류하여 우대 조건*을 제공하고, 보증한도 심사 시 新기술평가시스템**을 활용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함.

* ①보증료 0.3%p 감면, ②보증 비율 95% 적용, ③운전자금 사정 생략(~2억원)

** 분야별 영위업종 변수 분석에 AI 접목 / 기술 차별성, 모방 난이도 등 미래 성장 지표에 가중치 부여

○ 이와 함께, 신용보증기금에서도 ①뉴딜기업 특화보증*, ②소부장 협력모델 특례보증** 등 보증한도 특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스템반도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.

* (뉴딜기업 특화보증) 보증료율 최대 △0.4%p 및 보증비율 최대 95% 지원

** (소부장 협력모델 특례보증) 보증료율 최대 △0.3%p 및 보증비율 최대 90% 지원

출처 : 산업통상자원부 원문보기

2. 산업부, 소부장 중소·중견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착수

○ 재직자의 기술역량 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
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3.4(목) 소재·부품·장비(이하 소부장)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“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” 수행기관 모집을 공고함.
 - 동사업은 소부장 중소·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현장기술인력의 역량 고도화를 위한 재직자맞춤형 기술교육과 공공연 연구인력의 소부장 중견기업 파견을 지원하는 사업임.
 - 산업부는 금번 공고를 통해 4월까지 주관기관을 모집·선정하고, 5월부터 인력양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, '21년 36억원을 시작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.
- “재직자맞춤형 기술교육”은 소부장기업에서 근무하는 현장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, 공정기술, 융·복합기술 등을 교육하여 고숙련·고급기술인력으로 양성할 예정임.
 - 현장의 문제해결 능력 제고를 목표로 공공연에 구축된 연구·시험장비를 활용하여 사례중심 이론교육 및 교육과정의 60%이상을 교육생 참여형 실습교육으로 운영함.
 - 5개 분야별로 2개 이상 공공연의 장비·인력 인프라를 활용하여 융합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.
 - 재직자맞춤형 기술교육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부장 분야의 비영리기관은 금번 공고(21.3.4~4.5) 내에 신청하면 되며,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(www.motie.go.kr)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(www.kiat.or.kr) 사업공고를 확인

○ 공공연 연구인력 지원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

- “연구인력 활용 기술자문”을 통해 소부장 중견기업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연의 전·현직 연구인력을 중견기업에 파견, 기술자문을 지원함.
 - 동사업은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*하고 있는 연구인력 파견지원을 소부장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임.
 - 수요기업과 공공연의 전문가를 매칭하여 지원하고, 파견연구원 인건비의 50%(3천만원 한도)를 지원하되, 기업당 1명씩 최대 2년까지 지원하며, 융·복합기술 또는 으뜸기업 지원 시에는 2명까지 지원함.
 - 동사업은 공공연의 현직 뿐 아니라 퇴직연구원까지 활용하여 소부장 중견기업을 지원함으로써 퇴직 전문인력의 지식·경험·노하우가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·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.
 - 지원을 희망하는 소부장 중견기업은 수시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(www.fomek.or.kr)를 통해 수요를 접수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음.